

'정부 합동 중남미 농업협력사절단' 파견

농촌진흥청·외교부 공동 파견, 자메이카·온두라스 방문... 농업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과 외교부(장관 조태열)가 공동 파견한 '한-중남미 농업협력사절단'(단장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김홍용 국장 이하 사절단)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자메이카 온두라스를 방문해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자메이카를 방문한 사절단은 20일 농업진흥청(RADA) 마리아 영(Marina Young) 총장 및 카리브농업개발연구소(CARDI) 디오네 클라크 해리스(Dionne Clarke-Harris) 자메이카 지소장을 면담하고 RADA가 지도하는 지역 양돈장을 시찰했다.

사절단은 자메이카가 최근 신규 가입한 KofFACI 및 카리브 지역의 농업 협력 플랫폼인 KcCARIP을 통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농업연구개발과 기술 보급 관련 자메이카 측의 구체적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절단은 KofFACI와 KcCARIP에 모두 가입한 유일한 국가이자 농업 잠재력



농촌진흥청과 외교부가 공동 파견한 한-중남미 농업협력사절단은 지난 19~23일 자메이카, 온두라스를 방문해 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뛰어난 자메이카가 한-카리브 간 농업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온두라스를 방문한 사절단은 22일 한-온두라스 농업기술협력 강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ofFACI를 통한 한-중남미

농업 연구 협력 실적 및 KOPIA 파테말라 센터의 성과를 소개했다.

온두라스 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목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과제를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건조회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파테말라 KOPIA 센터를 중미 북부 거점으로 삼아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세르히오 로드리게즈 로요(Sergio Rodriguez Royo) 사모라노농업대학교(Zamorano) 총장을 면담한 사절단은 중남미 최고의 농업 전문 대학교인 사모라노와 함께 농업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중남미 농업협력사절단의 자메이카·온두라스 방문은 한-카리브, 한-중남미 간 농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KofFACI 활성화, KcCARIP 출범 및 양자 협력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한-중남미 간 협력을 한층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한-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약체제를 통해 중남미에 당면한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맞춤형 기술 전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23일 본관동 1층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부'

탄소산업진흥원,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와 나눔 활동 실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탄진원)은 지난 23일 본관동 1층에서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하는 자선바자회 '아름다운 하루'를 개최했다.

탄진원은 23일 바자회에서 진행된 기부물품 및 친환경 제품 자선 바자회는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위해 임직원 기증 물품을 재판매하고, 해당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자원순환 실천을 통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160여명의 탄진원 임직원들은 이번 나눔 바자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주 동안 자원순환 기증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생활용품과 의류, 가전 제품 등 총 800여점을 기부했다.

탄진원은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통해 2년여에 걸쳐 1,549점의 물품을 자원순환 함으로써 약

24kgCO2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28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효과를 거뒀다.

한편, 탄진원은 23일 바자회에서 진행된 기부물품 및 친환경 제품 판매 수익금 250여만원을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전달했다.

이날 판매되지 않은 물품의 경우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를 통해 재판매되고 해당 수익금은 아름다운가게 나눔 사업인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에 쓰일 예정이다.

바자회에 참여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경아 팀장은 "아름다운 나눔을 통해 자원순환과 함께 친환경 소비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도내 지방공기업 최초로 4년 연속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인권경영시스템(Human Rights Management System)이란 조직의 인권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3자의 심사를 통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공급망 이해관계자, 소비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경영활동이다.

공사는 2021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최초 획득하였으며, 올해 역시 한국경영인증원(KMR)의 성숙도평가와 현장심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인권경영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7일 재인증을 승인받았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인권

경영시스템 인증을 꾸준히 획득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도민, 공사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ESG경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인증을 바탕으로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지역사회에 인권존중문화를 꾸준히 재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전북혁신도시 인권경영협약체(전북개발공사, 한국출판문화산



서를 6월 14일까지 순회 전시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 대표기업 교류회 및 B2B 상담회 진행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기업교류회 및 B2B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업대표 및 바이어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별 회사용 및 전시제품 소개, 국내시장 식품트렌드 교육, 바이어 초청 B2B상담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대표기업 35개사의 주요제품 전시와 기업별 회사 홍보가 이루어져 전북 농생명식품 대표기업 간 판로 정보 공유 및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변화하는 국내 식품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진행하여 기업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서는 사전에 공유된 제품 정보를 바탕으로, 풀무원 구매바이어 6명과 CJ 구매바이어 3명이 참석하여 관심 품목에 대한 상담이

진행되었다.

홍원 박원희 대표는 "기업대표들을 직접 만나 정보공유를 할 수 있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전북자치도 백승하 농생명식품과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농식품기업 간 거래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도의 농생명



전북바이오진흥원과 전북도는 도내 농생명산업을 이끌어갈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3~24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호텔에서 기업교류회 등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 발전과 기업 간 협업 증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풍년농사기원 일손 돕기 실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장장 박근하)는 지난 23일 익산 상당농협(조합장 허정천) 일대 농업인 및 조합원의 영농 작업 현장에 찾아 풍년농사기원 일손 돕기에 나섰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실시된 이날 일손 돕기에 농협 익산시지부, 상당농협 직원들이 함께 육묘 치상 및 파종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상당농협이 운영하는 벼 육묘장은 안정적으로 농가에 육묘를 제공함으로써 농가가 못지않은 작업에 소요되는 일손을 덜어주고, 농촌 지역의 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박근하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장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협사료 군산바이오는 지난 23일 익산 상당농협 일대 농업인 및 조합원의 영농 작업 현장에 찾아 풍년농사기원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인해 인력수급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손 돕기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